

실속없는 ‘한방’보다는 ‘내구성·꾸준함’

KIA, 새 외국인 타자에 거는 기대

포스트 최형우, 내년 시즌 타선 중심축 운용 방향성 신중 고려 위즈덤 한계 절감...‘득점권·기복·조합’ 선택 기준 필수 조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타자 구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이름이나 계약 시점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이번 선택을 둘러싼 고민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팀 공격의 ‘해결사’ 최형우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느냐와 어떤 유형의 외국인 타자를 영입해야 하느냐다.

이번 스토브리그 자유계약선수(FA)였던 최형우가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KIA의 전력 약화는 뚜렷해졌다.

단순히 한 선수가 빠진 것이 아니라, 중심 타선에서 꾸준한 득점을 책임지던 축이 사라졌다.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이번 구상 논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외국인 타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KIA는 올 시즌 타선에서 득점이 막히는 장면을 적지 않게 경험했다. 특히 외국인 타자 위즈덤은 35홈런으로 파위를 증명했지만, 리그 외국인 타자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득점권 타율(0.207)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래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되는 결정력과 압도감이 KIA에는 없었던 셈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새 외국인 타자는 올

겨울 팀 전력 보강의 핵심이다.

국내 선수들과 비교해 신체 조건과 타구 질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팀 공격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제는 그 차별성이 실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단순한 장타 지표만으로는 부족하고, 찬스 상황에서 일관되게 득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생산력이 관건이다.

KIA로선 큰 거 한 방에 국한되기보다,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선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타자 선정 과정 역시 더욱 꼼꼼해졌다. 구단은 홈런 개수에 더해 타점 생산력과 출루 능력, 시즌 전반의 기복과 부상 관리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단기적인 폭발력보다, 시즌 내내 타선 한가운데를 지탱할 수 있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은 당연하다.

선수 개별 능력뿐 아니라, 타선 전체와의 조합도 함께 고려할 요소다.

새 외국인 타자가 우타자인지 좌타자인지는 중요한 변수다. 현재 KIA 타선에는 나성범, 오선우, 김석환 등 좌타자가 여럿 포진해 있다. 최형우와 같은 좌타자를 가져갈지, 우타 거포를 다시 데려올지는 내년 타선의 밸런스는 물론 경기 운영의 선택지를 넓히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포지션은 그다음 문제다.



위즈덤

〈KIA 타이거즈 제공〉

외야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좌익수 배치 확률이 크다. 수비 부담을 줄이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카드 가운데 하나일 뿐, 포지션 자체가 판단의 중심은 아니다. 수비에서도 일정 수준의 능력치는 전제로 깔린다. 외국인 타자는 방망이와 더불어 수비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정리하면, 새 외국인 타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은 특별한 무언가라기보다, 그동안 외국인 타자의 본래 가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가깝다. 그만큼 위즈덤의 사례는 그 판단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지점이 됐다.

무엇보다 타선에서의 실질적인 해결 능력을 갖췄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아울러 수비에서 한 단계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고, 주루 능력까지 갖췄다면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 결국 이번 영입의 본질은 ‘누가 오느냐’보다 ‘얼마나 기여해줄 수 있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다.

구단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 구성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KIA는 여러 비교군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최형우 이탈 이후 흔들린 공격의 축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가 외국인 타자 구상의 초점이다. 이 결정은 내년 타선의 화력뿐 아니라, 공격의 틀을 어떻게 짤지를 가능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홍철 기자

광주FC, 안영규·하승운과 2년 더 동행

프로축구 광주FC가 ‘베테랑 센터백’ 안영규·‘왕어’ 하승운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16일 “구단 역대 최다 출장자이자 황금기를 함께한 안영규, ‘공격의 활력소’ 하승운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동행을 이어간 다”고 밝혔다.

광주가 고향인 안영규는 2012년 수원 삼성에서 프로 데뷔한 뒤 대전을 거쳐 2015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33경기에서 2골로 K리그 1 잔류에 힘을 보탰다. 이후 아산·안산 무궁화(경철정) 입대를 거쳐 2018년까지 광주에서 뛰고 성남FC로 옮겼다가 2022년 복귀해 지금까지 활약 중이다.

특히 복귀 첫해 팀을 K리그 2 역대 최단기간 우승과 최다 승점 신기록으로 견인하며 구단의 역사를 새로 썼고, 시즌 MVP를 수상하며 개인 커리어에서도 큰 성과를 올렸다. 2023시즌에는 광주의 K리그 1 역대 최고 성적과 창단 첫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이끄는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올 시즌 주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며 리그 16경기 1도움을 기록했다. 더불어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달성, 광주 FC 통산 191경기(현재 기준)로 구단 최다 출장자에 오르며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안영규는 “광주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경기력과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승운은 빠른 발을 이용한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다재다능함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으며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포항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하승운은 이후 전남과 안양을 거쳐 2022년 광주에 입단했다. 하승운은 해당 시즌 30경기 2골 4도움을 기록해 팀의 K리그 2 역대 최단기간 우승과 최다 승점 신기록에 기여했다.

올해 19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데뷔 이후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으며, 주



안영규(왼쪽)와 하승운

〈광주FC 제공〉

포지션인 원어번 아니라 측면 수비까지 소화하며 멀티 플레이어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하승운은 “광주에서 더 오랜 기간 활약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팀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 기자

“축구 감독 인생 걸고 전남과 함께 K리그1 승격”

K리그2 전남, 박동혁 감독 선임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는 16일 구단 제17대 사령탑으로 박동혁(46)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올 시즌 K리그2에서 14개 팀 중 6위에 처져 준플레이오프(PO) 진출에도 실패하면서 또다시 K리그1 승격이 좌절된 전남은 앞서 15일 김현석 감독과 부임 1년 만의 결별을 알렸다.

신임 박동혁 감독은 K리그 통산 244경기에 출전했고 국가대표로도 A매치 18경기를 뛰었다.

박 감독은 2018년 K리그2 아산 무궁화 지휘봉을 잡고 K리그 최연소 감독으로 데뷔, 그해 K리그2 우승을 일구고 올해의 감독상을 받으며 실력을 갖춘 젊은 지도자로 주목받아왔다.

프로 감독 데뷔 이후 7시즌 연속으로 감독직을 유지하며 통산 255경기(K리그2 238경기, 코리아컵 17경기)를 지휘할 만큼 나이에 비해 경



박동혁 전남 드래곤즈 신임 감독. 〈전남 드래곤즈 제공〉

험이 풍부하다.

박 감독은 “전남을 명가로 재건하는데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인생을 걸고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는 “K리그1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전남 신규 스포츠클럽 6개 선정 ‘전국 최다’

전남 스포츠클럽이 활기를 띠며 전남체육도약에 청신호를 켜다.

전남도체육회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지정스포츠클럽 신규·갱신 선정’ 결과, 신규 지정 6개, 예비 지정 2개, 갱신 7개 등 총 15개 클럽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클럽은 ▲순천유도스포츠클럽, ▲보성공공스포츠클럽 ▲무안공공스포츠클럽 ▲장성야구스포츠클럽 ▲함평나비유소년스포츠클럽 ▲강진에이스테니스 등 6개로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경기 4개, 경북·경남 각 3개, 인천 2개, 대전·강원·전북이 각 1개 선정됐다.

이어 갱신 지정 클럽에는 ▲순천스포츠클럽 ▲여수공공스포츠클럽 ▲나주스포츠클럽 ▲구례노고단스포츠클럽 ▲강진스포츠클럽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영광스포츠클럽, 예비 지정 클럽으로는 ▲장흥종합형스포



신규 지정클럽으로 선정된 무안공공스포츠클럽

〈전남도체육회 제공〉

츠클럽 ▲완도장보고스포츠클럽 등 2개가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소년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결과는 도민과 지도자, 시·군체육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스포츠클럽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김하성, 1년 294억원에 애틀랜타 잔류

2026 시즌 후 FA 제도전

김하성(30)이 2026시즌 원소속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뛰는다.

MLB닷컴은 16일 소식을 인용해 “김하성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와 계약기간 1년, 총액 2천만달러(약 294억원)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MLB에 입성한 김하성은 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천900만달러(426억원)에 계약하면서 2025시즌 뒤 옵트아웃(계약 파기 권한) 조항을 넣었다. 오른쪽 어깨 관절외상 파열 부상 탓에 2025시즌 중반 복귀한 김하성은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9월 탬파베이에서 방출된 뒤 유격수 자원이 필요했던 애틀랜타에 합류했다. 애틀랜타에서 정규시즌을 마무리한 김하성



애틀랜타와 계약한 김하성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은 잔류와 옵트아웃 행사를 두고 고민하다가 2026시즌 연봉 1천600만달러 옵션 대신 옵트아웃을 선택했다.

그러나 김하성은 바깥장기계약을 하진 못했다.

최근 국내에서 몸만들기에 집중하는 김하성은 건강관 몸으로 건재를 과시한 뒤 2026시즌 F.A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